

## 開發途上國間의 農村開發協力의 課題와 戰略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국제회의」를 마치고

崔 洋 夫

首席研究員, Ph.D.(農業經濟學), 農村開發研究室

鄭 起 煥

研究員, 農村開發研究室

### I. 머리말

### II. 開發途上國間의 經濟 및 技術協力과 農村／農業開發

### III. 韓國과 開發途上國과의 農業／農村開發協力

### IV. 맺는 말

### I. 머리말

개발도상국간의 農村 및 農業開發協力의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협력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하는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國際會議」(International Workshop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ing Countries)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아시아·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African-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 AAR RO)의 공동주최로 1983. 10. 12—20(9일간) 사이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의 서울 회의는 大統領의 아시아·아프리카 巡訪外交 이후 우리나라의 아시아·아프리카 進出 및 아시아·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經濟 및 技術協力問題

가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도, 대만, 말레이지아, 타일랜드, 필리핀, 요르단, 스리랑카) 및 아프리카(나이제리아, 이집트, 가나, 케냐, 모로코, 시에라레온, 모리셔스, 라이베리아) 16개국의 政府高位官吏 및 學者 등 32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들 스스로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가를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개도국간의 대화의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의 서울會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와 AARRO가 제시한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모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주제에 대한 招請論文 4편과 國家別 報告書 32편의 발표, 그리고 4개의 分科로 나뉘어 진행된 分科討論을 토대로 한 서울會議 結果報告 및 建議書를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토론시간을 마련하여 참가 16개국이 각국이 농촌 및 농업개발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

인 협력분야와 협력방식, 그리고 각국이 다른國家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분야와 지원방식을 논의함으로써 開發途上國家間의 技術 및 經濟協力이 단순히 理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實踐 가능한 것이라는 확신에 공감대를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會議의 성과는 무척 큰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서울會議에서 토의된 내용과 筆者들이 평소에 생각해 온 開發途上國家間의 農業/農村開發協力を 위한 과제와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시아·아프리카 進出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아시아·아프리카 農業/農村開發을 위한協力方案 등을 간추린 것이다.

## Ⅱ. 開發途上國間의 經濟 및 技術協力과 農村／農業開發

1978년 開發途上國內의 技術協力에 관한 유엔會議(브에노스 아이레스 宣言)<sup>1</sup> 이후 개도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 ECDC ;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TCDC)은 新國際經濟秩序(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의 理想實現을 위한 開發途上國의 經濟 및 技術發展을 위한 효과적인 戰略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國際的 關心의 초점이 되어 왔다. 개도국간의 기술 및 경제협력론은 1950년대 이후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경제원조가 개도국의 현실여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러한 기술 및 경제원조

가 개도국의 자주적 발전보다는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식민지적 종속성을 오히려 증대시켜 왔다는 비판론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시아·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절대적인 食糧不足 속에서 빙곤과 굶주림, 영양실조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農村人口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그 동안의 이들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경제원조는 이들 국가의 食糧生產能力의 향상에 주어졌기보다는 오히려 선진국이 필요로 하는 공업원료형 농산물, 즉 고무, 차, 커피, 사탕수수, 코코아 등의 생산에 주어졌고, 직접적인 食糧援助는 오히려 개도국의 식량생산능력을 위축시키거나 식민지형 농업체제를 존속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선진국의 기술원조는 개도국의 현실여건에 안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술원조는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자재나 부품수입의 확대를 유발, 개도국의 外債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 이와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 및 경제협력은 자연히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현실 인식은 개도국들로 하여금 비슷한 여건에 처해 있는 인접 개도국가 가운데서 보다 여건에 알맞은 適正技術 내지는 中間技術(appropriate technology or intermediate technology)의 발굴과 국가간 이전 및 적용에 더욱 큰 관심을 쏟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아시아·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개도국이 식량부족 속에서 많은 농촌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개도국간의 기술 및 경제협력에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이번 서울會議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다음과 같은 8개 분야가 개도국간의 협력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sup>1</sup> United Natinos Conference on Technical Coop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Draft Plan of Action, A/CONF. 79/3, 3 August—12 September, Buenos Aires, 1978.

- (1) 개도국간의 交易增大
- (2) 農業發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 (3) 에너지분야를 포함한 농촌의 비농업분야의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 (4) 경제성장의 혜택을 꿀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경제제도의 혁신
- (5) 토양유실, 한발, 사막화 등과 같은 생태적 환경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
- (6) 農村의 貧困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사업
- (7) 의료, 교육, 가족계획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농촌전달체계
- (8) 신기술의 수용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제도의 혁신.

### 1. 開途國間의 交易增大

오늘날 開途國은 이들 國家의 輸出의 주축이 되고 있는一次商品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규제와 이로 인한 國際收支問題 등으로 심각한 外債 부담문제를 안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은 국제경제에 대한 현실인식은 開途國間의 무역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하고 있다. 서울會議는 개도국간의 무역확대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주제의 전문성을 감안, 개도국간의 무역확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UNCTAD의 아시아, 아프리카 구룹, 그리고 77구룹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토의를 마무리지

었다.

### 2. 適正技術의 開發, 移轉 및 適應

食糧增產을 위한 농업생산기술, 농촌경제의 가내공업과 같은 비농업분야의 기술, 에너지 절약적 기술 등에 있어서 그 동안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협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會議는 이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간의 협력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表 1>은 이번 서울會議에서 제시된 農業/農村開發을 위해 開

表 1 開途國間의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必要한 協力分野\*

分 野	細 部 內 容
1. 適正技術의 開發 및 移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業生產技術 (쌀, 양자, 양계, 사탕수수, 차, 코코아 등의 품종개량과 재배기술)</li> <li>○ 비닐 農業技術</li> <li>○ 食品加工 및 쌀 도정 기술</li> <li>○ 農機具改良</li> <li>○ 農村에너지 節約(특히 메탄가스)</li> <li>○ 농촌전축자재 생산</li> </ul>
2. 土壤保全 및 用耕開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下水 開發</li> <li>○ 農地開發(개간)</li> <li>○ 토양유실 방지</li> </ul>
3. 農村小規模 工業開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가내공업(식품가공, 생필품 분야)</li> </ul>
4. 人力開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業技術者, 地方公務員 및 農村指導者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관리능력 향상)</li> <li>○ 교육훈련기법</li> <li>○ 전문가의 파견(농업생산기술 등)</li> </ul>
5. 情報, 資料의 交換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業生產技術 및 適正技術에 대한 研究結果의 교환</li> <li>○ 國家間 研究機關間의 協力增大</li> <li>○ 전문인력의 교환</li> <li>○ 공동연구의 추진</li> </ul>
6. 管理 및 計劃 技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행정조직 및 관리운영</li> <li>○ 農村開發事業의 관리기법</li> <li>○ 農村地域單位의 미시적 계획기법(농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li> </ul>
7. 農村指導 및 農民團體의 組織과 育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民指導技法</li> <li>○ 農民團體의 조직과 육성기법 (협동조합 등)</li> </ul>

\* AARRO/KREI 國제 워크샵에 참가한 아시아·아프리카 16個國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임.

<sup>2</sup> Dong-Hi Kim,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ing Countries",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ing Countries, AARRO/KREI, October 12-20, 1983 Seoul, Korea.

途國間의 協力이 요청되고 있는 분야들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개도국들이 地域現實에 알맞는 適正技術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農業/農村開發研究機關을 설립하여 연구업적을 쌓아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연구기관들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가 어떤 연구에 어떠한 성과를 이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연구기관간의 직접적인 연구자료 및 인력의 교류와 공동연구 등의 추진으로 개도국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연구기관간의 직접교류의 확대는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表 1>에 요약되어 있는 분야에 걸쳐서 農村開發과 農業技術革新에 기여할 수 있는 社會, 經濟制度의 革新에 관련된 사항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3. 開發成果의 均等한 擴散을 위한 經濟制度의 革新

대부분의 개도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經濟成長의 혜택이 農村住民들에게까지 끌고루 擴散되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農地制度의 改革, 農民協同組合과 같은 自助的인 農民團體의 조직, 육성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經濟制度의 革新과 관련된 각국의 制度나 경험들, 특히 이 분야에서 성공한 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事例研

究를 통하여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을 교환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번 서울會議는 강조하였다. 따라서 개도국가간의 비교연구, 공동연구를 더욱 활발히 추진시켜야 한다는 데 서울會議는 합의하였다.

### 4. 農村貧困層에 대한 支援

서울會議는 그동안 개도국에서 추진해 온 많은 농촌개발사업들이 농촌지역의 貧困階層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거나 이들 계층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政府主導의 「위로부터의 개발사업」들은 農民들의 자발적인 「밑으로부터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農村새마을運動이 이루어 온 업적과 경험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農村貧困層을 개발사업에 동원, 참여시킬 수 있는 동기의 부여와 정부 및 민간사회단체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별 사례연구와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교류가 역시 강조되었다.

### 5. 公共서비스의 農村傳達體系

農村住民들의 삶의 質의 향상을 위한 각종 公共서비스의 農村傳達과 관련, 특히 초등 및 성인 교육, 직업교육, 의료, 상수도, 영양개선, 가족 계획 등의 부문에 있어서 비용절약적인 방안의 모색과 동시에 효과적인 전달체계(delivery mechanism)의 개발은 대부분의 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公共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끌고루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農村地域單位에서의 行政調整能力의 향상과 함께 農村地域의 도로, 교통, 통신망의 체계적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서울會議는 강조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

간의 경험의 교류를 촉구하였다.

## 6. 바람직한 價值觀이나 態度의 變化를 촉진하는 社會制度의 革新

開途國의 農村住民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의식구조, 태도 등은 食糧을 포함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新技術의 수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의 新技術에 대한 수용태도의 변화를 통한 수용능력의 향상은 經濟的 變數뿐만 아니라 社會文化的, 또는 성취동기의 부여와 같은 心理的 變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울會議는 개도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社會變動을 유발시키는 社會工學的 技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기구는 물론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과 같은 비정부 기구의 역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시 이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이 축적하고 있는 경험에 대한 교류를 촉구하였다.

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食糧不足, 農業의 低生產性, 農村의 低開發, 農村住民의 低所得은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고,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농촌개발을 위해서 요청되고 있는 개도국간의 협력분야도 단순히 생산기술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表 1>과 같이 社會 經濟制度, 農村開發行政技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農業/農村 開發도 결국은 이러한 開發을 계획하고 주도해 나갈 人的資源의 能力과 緒結되어 있다는 점에서 開途國의 研究, 行政, 指導人力의 開發을 위한 개도국간의 교육훈련협력과 연구협력, 인력교류 등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협력분야라는 점이다. 특히 開途國間의 개발경험을 나누어 갖는다는 점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개도국간의 사례 연구, 공동연구는 중요한 개도국간의 협력분야가 아닐 수 없다.

## III. 韓國과 開發途上國과의 農業/農村開發協力

그렇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開途國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의 농업/농촌개발협력을 바라고 있으며, 그러한 개도국들의 요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對應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나라와 開途國間의 農業/農村開發協力を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개도국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형식의 농업/농촌개발협력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서울會議는 우리 나라를 제외한 아시아·아프리카 15개 會議參加國 代表들을 통해서 농업/농촌개발협력이 요청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꼭 유익한 것이 되었다. 이번 서울會議에 참가한 아시아·아프리카 대표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表 2>와 같다.

開途國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바라고 있는 農業/農村開發協力分野는 (1) 農業技術開發, (2) 農村開發 및 行政, (3) 農村小規模工業開發, (4) 農民團體의 組織과 育成, (5) 農村經濟組織의 5개 분야로 집약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分野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력방식은 기본적으로 開途國의 農業/農村開發을 담당할 연구, 행정 및 지도인력의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요약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관계전문가의 파견 또는

表 2 아시아·아프리카 開途國이 바라고 있는 우리 나라와의 農業/農村開發協力 分野

協 力 分 野	協 力 方 式
1. 農業技術開發	○ 우리나라의 전문가 개도국파견 (연구전문가 또는 교수 등)
-작물재배 (쌀, 잡업, 원예작물 등)	○ 개도국 전문가의 한국내 훈련 (한국의 대학원과정 또는 관계 연구기관에서의 연수)
-토지 및 용수 개발	○ 개도국 지도자에 대한 단기연수 방문
2. 農村小規模工業開發	○ 개도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식품가공 (특히 쌀도정 등)	○ 물자지원 (연구, 교육훈련, 농촌지도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지원)
3. 農村開發 및 行政	
-農村開發事業樹立 및 評價	
-農村計劃技法	
-農村下部構造 및 環境開發 (농촌도로, 농촌의료, 가족체회 등)	
-農村指導 및 農民教育	
-農村새 마을 運動	
-農村指導者 教育	
4. 農民團體組織 育成	
-協同組合育成	
5. 農村經濟組織	
-農產物市場組織	
-農村金融制度	

공동연구의 추진, 그리고 개도국 전문가의 한국방문, 장단기 훈련 연수 등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開途國의 우리 나라에 대한 기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취해야 할 對應戰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前提를 바탕으로 구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南北間의 고조되는 긴장이 國際外交에 투영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非同盟國家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非同盟國家와의 外交強化라는 국가외교차원에서 農業/農村協力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것은 둘째로 둘 수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 開途國들은 심각한 식량부족과 빈곤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고 식량증산과 농촌빈곤 퇴치를 위한 농촌개발이 이들 국가들의 제일의 과제가 되어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

초하고 있다. 그러나 세째는 이와 같은 農業/農村開發協力은 政府次元이 아닌 民間次元, 또는 商業的 次元에서는 크게 제약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輸出業界가 당면하고 있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관련하여 아시아·아프리카 진출이 商業베이스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했을 때 農業/農村開發協力은 商業베이스로 다루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 가지를 전제로 할 때 아시아·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농업/농촌개발협력은 결국 外交的 次元에서 그리고 政府次元에서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베마 사건 이후 北韓의 非同盟外交에 어떤 공백이 예상된다고 할 때 農業/農村開發協力を 통한 非同盟外交의 強化는 韓國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안정된 경제적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開途國에 대한 농업/농촌개발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국내여건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증가가 예상되는 開途國의 훈련생들을 흡수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의 설치와 함께 분야별로 이러한 훈련생을 지도할 교육인력의 개발이 시급하다. 農業/農村開發分野에는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진흥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농업협동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본부 그리고 농파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개도국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개도국 훈련사업에 대한 획적 연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農水產部의 國際協力課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체계화하거나, 또는 에집트의 國際農業센터(Egypt-

tian International Centre for Agriculture)와 같은 교육 및 훈련 전담기구의 신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도국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강화와 함께 지역별 또는 국가별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과 이를 위한 개도국과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연구인력 교환,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연구자료 교환 등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세째는 우리 나라의 農業技術은 開途國의 農業發展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물, 임업, 농기계, 농업토목, 축산 등의 분야에서 훈련된 전문연구인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기술 인력의 개도국 파견은 국내 농업연구인력 수급의 원활화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네째로는 適正技術의 移轉이라는 측면에서 移轉可能한 국내 농업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와 開途國의 농업발전 수준을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농업기술, 예를 들면 인력에 의존하는 반자동식 농기구나 재래식 도정기술 등은 오히려 근대적인 자동화된 농업기술보다 개도국의 농업/농촌현실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會議에 참석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대표들이 농촌시찰에서 우리 농촌에서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반자동식 탈곡기나 가마니틀, 새끼틀 등에 깊은 관심을 표시한 것은 꼭 의미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재래식 농업기술에 대한 체계화와 함께 이러한 적정기술 이전을 商業化 이스로, 예를 들면 반자동 탈곡기나 새끼틀 공장 등을 아시아·아프리카의 현지에 합작형식으로 설립하는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열거한 농업/농촌개발협력 사업들은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렇다고 정부재정 형편상 단기간에 어떤 획기적인 국제협력예산의 확대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제협력기금의 조성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금 조성의 한 방안으로서 아시아·아프리카의 진출 기업 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무역협회와 같은 경제단체와 농업단체 등이 「아시아·아프리카 농업/농촌개발협력기금」조성에 참여케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IV. 맷는 말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갖는 관심은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그들과 큰 차이가 없이 가난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 경제 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인가 개도국의 현실에 맞는 개발경험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개도국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문과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우리나라의 國際協力事業은 아직도 시작내지는 준비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농업/농촌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역할증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制度的, 財政的 基盤을 갖추는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歐美依存的인 外交에서 벗어나 第三世界 國家들을 대상으로 하는 非同盟外交의 強化가 더욱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들 개도국들이 農業/農村開發分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農業/農村開發協力を 통한 非同盟外交의 強化」가 갖는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國際的 信賴와 國家的 利益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國際外交의 理想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極東의 한국으로서만 安住할 수는 없으며 開途國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개도국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아시아·아프리카의 開途國들과의 友好的인 經濟 및 技術協力은 韓國의 國

際外交가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韓國外交가 成熟段階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國際社會에서의 位置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마事態의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개최된 이번의 서울會議는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도국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또는 世界平和를 위해서 진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체계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 회의였으며, 착실한 外交的 成果를 쌓은 회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